

韓國建築史研究 30年:朝鮮~近代

金 東 旭
(京畿大學校)

〈目 次〉

- | | |
|-----------|------------------------|
| I. 머리말 | 4. 鄉校 書院 및 기타건축 |
| II. 조선시대 | 5. 구조형식 |
| 1. 궁궐과 성곽 | III. 근대(개화기에서 1945년까지) |
| 2. 불교건축 | IV. 결어 |
| 3. 주택건축 | |

I. 머리말

한국건축사에서 조선시대와 근대는 각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 시기 건축에 대한 연구 역시 각기 독립된 연구방법과 시각에 의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조선시대는 우리가 흔히 전통건축이라고 부르는 19세기 이전 건축물의 유구 거의 대다수가 집중되어 남아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대에 대한 연구는 우선 유구를 통한 건축 세부형상이나 구조형식의 변화 및 공간구성이나 배치형식등이 중심이 되어왔다. 또한 연구의 대상도 궁궐을 비롯하여 불교사찰, 주택 및 향교 서원 관아등 이 시대 사회의 다양한 성격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확대 전개 되어왔다. 한편 과거 조선시대건축을 단순히 건축양식의 발전단계의 틀로만 조명하여 양식상의 쇠퇴기로 정의한 일인들의 평가를 극복하고 조선시대 건축을 이 시대의 고유한 건축표현의 결과로 인식하려는 노력들도 꾸준히 전개되어, 주택이나 불교건축등에서 건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이 제시되었다.

한국건축에서 근대는 대체로 조선왕조의 사회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기이후 20세기 전반을 지칭하고 있으며 특히 서양식의 건축이 도입되어 우리 건축이 과거의 형태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형태로 변모해간 시기이다. 이 시기에 대한 연구는 현존하는 유구를 통한 건축형태의 분석작업과 이 시기에 새로이 등장한 건축가라는 존재에 대한 작가분석 작업으로 대별될 수 있다. 근대의 건축은 그것이 현대와 직결되어 있고 또한 조선시대와 현대의 가교 구실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관심은 지난 30년의 연구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II. 조선시대

1. 궁궐과 성곽

조선시대 궁궐에 대해서는 이미 50년대에 王宮史(李哲源, 1954)가 출판되고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에서 宮闕志, 漢京識略등의 기본 문헌을 영인 출간함으로써 학문적 기반이 다져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60년대에 들어와서 활발한 연구성과가 이루어졌다.

서울特別市史 古蹟篇(同시사편찬위원회, 1963)은 조선조 궁궐은 물론 도성과 도성주변의 북한산성 남한산성등을 망라하여 조선시대 궁궐과 성곽을 학문적으로 서술한 최초의 종합적인 연구성과이다. 각 궁궐에 대하여는 궁궐 연혁을 왕조실록에서 직접 인용한 사료를 바탕으로 서술하였으며 궁궐내 주요전각에 대하여는 그 전까지 정리된 도면과 함께 건축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풀이하였다. 성곽의 경우에도 도성 및 주변의 산성에 대하여 주로 실록의 기사를 바탕으로 연혁이 고찰되고 성문과 성벽에 대한 건축적인 분석이 서술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문헌자료는 시사편찬위원회가 설립되고 여러해 동안 노력을 기울인 왕조실록의 도성관련 자료수집 작업이 토대가 되었으며 각 건물에 대한 실측도면이 새로이 작성되었다. 이후 조선시대의 궁궐이나 성곽의 연구에 미친 이 문헌의 영향은 실로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향토서울에 실린 일련의 논문들, 즉 景福宮重建에 대한 小攷(張大源, 1964), 仁慶宮考(韓星國, 1964), 肅宗朝北漢築城考(金龍國, 1966)는 개별적인 궁궐과 성곽에 대한 논고로, 왕조실록 및 일성록등 주로 관찬사료에 의존하여 각 궁이나 성곽이 축조된 제반 정치 경제적 배경을 상세히 규명하였다. 이러한 건물 축조의 배경에 대한 연구는 건물의 형태나 세부가 형성되는 사회 경제적 원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들임은 물론이다.

수원성곽의 축조과정을 기록한 華城城役儀軌(1796, 정조20)의 전권 영인본이 1965년 간행된 것은 무엇보다도 주목된다. 이 문헌의 학술적 가치는 새삼 언급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이며 그 전에도 개인 소장본이나 일부 도서관에 소장된 책을 통하여 부분적인 인용이 있어왔던 터지만 영인본으로 간행됨에 따라 연구자들이 손쉽게 원문을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구의 가능성을 한층 열어놓은 것이다. 이와 아울러 새로운 궁궐지가 소개되어(考古美術 103, 104호, 1969) 연구의 폭을 넓힌 것도 60년대의 중요한 업적이다.

70년대에는 성곽에 대한 수리 복원활동이 활발하였던데 비하여 궁궐은 뚜렷한 성과가 잘 안보였다. 복원공사가 이루어진 서울성곽과 수원성곽, 강화의 전적지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성곽복원 사업이었으며 그 외에도 남한산성, 해미읍성, 진주읍성, 고창읍성 등등 7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성곽유적의 보수 또는 복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작업과 관련하여 강화전사유적보수정화지(1978), 수원성복원정화지(1980), 행주산성보수정화지(1970), 금정산성전돈대지발굴조사개보(1970), 동래읍성서장대지발굴조사보고서(1979), 보은삼년산성기초조사보고서(1979) 등이 발간되었다. 성곽의 보수나 발굴에 대하여 비록 소수에 지나지는 않지만 그 결과를 위와 같은

책자로 남겼다는 점은 70년대의 학술적 업적으로 기록될만 하다. 다만 이 책의 제목에서 보듯이 상당수가 소위 정화지라고 하여 업적의 외형적인 면이 강조된 반면 실제 성곽의 해체된 내용이나 그에 관한 조사자의 학술적 고찰이 거의 실리지 못한 것이 이 시기 성곽 관계 보고서의 공통된 한계점이었다.

궁궐에 대한 70년대의 연구가운데는 궁궐의 배치계획이나 내부공간 구성방법을 다룬 논문이 대한건축학회지에 실렸다. 건축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궁궐의 배치나 공간구성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60년대에 없던 참신한 연구시각이 기대되는 성과였다. 다만 한차례 논문이 발표된 이후 계속되는 연구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성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되었다.

80년대는 다시금 궁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시기의 궁궐연구는 발굴 및 복원에 따른 심도있는 유구조사, 관련 문헌자료의 확충에 의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특히 주목된다.

창경궁중창공사로 일컬어지는 창경궁의 정비와 문정전일곽의 복원작업은 80년대 궁궐관계의 가장 중요한 업적일 것이다. 동물사를 모두 철거하고 외전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현상에 대한 정밀한 실측조사를 통하여 궁의 외전에 대하여 종래에 불충분하게 파악되었던 부분들이 많이 바로 잡혀졌다. 또한 문정전과 정전 주변의 행각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궁의 전각과 행각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다. 창경궁중창공사에 따라 昌慶宮發掘調查報告書(1985)와 昌慶宮(1989)이 각각 발간되었다. 앞의 보고서에는 발굴내용과 함께 창경궁의 연혁, 관련사료, 전각배치, 조경등이 고찰되었는데 70년대이후 새롭게 정리된 궁궐관계의 논고로 주목된다. 연혁은 왕조실록을 보다 심도있게 활용하였고 새로운 사료로 창경궁수리소의례 또는 창경궁영건도감의례 등의 의례류가 소개되었으며 전각배치에서는 궁궐지외에 동궐도 동궐도형 등의 도형자료를 원용하면서 궁의 좌향, 외전과 내전 전각의 성격규명이 새롭게 시도되었다. 뒤에 발간된 창경궁은 복원된 문정전의 도면을 비롯하여 창경궁내의 모든 건물의 실측도면이 수록되었는데 이로써 현존 궁궐로는 창경궁이 가장 먼저 전체적인 실측도면이 간행되는 궁궐이 되었다.

경희궁은 정전인 승정전의 복원과 관련하여 1985년이래 3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승정전이 복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慶熙宮址發掘調查書(1차 1985, 2차 1987) 및 慶熙宮崇政殿發掘調查報告書(1990)가 간행되었다. 이들 보고서에서는 과거 충분히 고찰되지 못하였던 경희궁에 대한 연혁이 상세한 문헌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승정문 건물의 복원과 관련하여 훈수 즉 당시의 설계치수에 대한 기술적 고찰이 시도되었다.

仁祖朝의 昌慶宮 昌德宮 造營(金東旭, 1978), 昌德宮 營建에 關한 研究(申榮勳, 1988)는 각각 궁궐의 중수에 관한 儀軌를 활용한 문헌연구로, 인조년간의 창경궁 창덕궁 조영이 대부분 인경궁의 철거 자재로 재건되었다는 점이나, 인경궁의 전각 명칭과 규모, 그리고 순조년간의 창경궁 재건 공사의 상세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었다.

서울六百年史—文化史蹟編—(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1987)은 60년대의 市史—古蹟編—간행이후 20년후에 다시 유사한 목적으로 재판찬되었던 만큼 그 사이 이 분야의 새로운 연구성과가 충실히 반영되었으며, 특히 문헌의 인용폭이 크게 넓어진 점이 두드러진다. 다만 많은 대상이

건축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혁의 정치한 서술에 비하여 건축물에 대한 논고나 도면류의 제시가 크게 미흡하였다.

궁궐은 조선시대의 가장 성숙된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지어진 건물인 만큼 기술사적인 연구가 중요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며 사상적인 면에서도 더욱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궁궐의 조영과정에 대하여는 규장각이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儀軌書에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므로, 앞으로 이들 문서를 철저히 고찰하게 되면 공사과정에서의 많은 귀중한 내용들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궁궐조영의 사상적 측면에서는 중국고대의 禮制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만큼, 그러한 사상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조선시대 궁궐은 이해하기 위해 앞으로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각 시기에 따로 궁궐의 복원적 연구 역시 중요한 과제인데 현재의 궁궐모습이 거의 19C 이후에 이루어졌거나 그후 변형된 것인 만큼 각 궁궐의 창건시의 모습, 재건때의 규모나 건축형태, 19세기로 내려오면서 행하여진 변화 등이 밝혀져야 한다. 특히 궁궐의 내전은 각 시대 주택건축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므로 내전 전각의 변화상을 밝히는 것도 주거건축의 실제파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조선시대 궁궐에 대하여는 아직도 개개 건물에 대한 현상파악이나 실증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우선 이런 면에서의 천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직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대한 정확한 실측도면이 구비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2. 불교건축

조선시대의 불교건축은 이 시대뿐 아니라 한국 건축가운데서도 양적으로나 건축예술의 연구대상으로도 단연 중심이 되는 대상이라고 하겠으며 그만큼 건물에 대한 조사나 연구도 양적으로 가장 풍부하였다. 60년대 이후 개별적인 사찰이나 사찰에 속한 건물에 대한 문헌수집, 도면작성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각 건물의 시대적 가치에 대한 평가도 많이 이루어졌다.

개별 사찰이나 사찰에 속한 건물의 조사결과는 60년대에서 70년대 중반사이에 考古美術에 수록 되었는데, 사찰의 연혁, 배치 건물의 특성 및 건립연대추정이 다루어 졌다. 팔공산 부인사, 지장사, 청양 장곡사, 서산 개심사 심검당, 영천 환성사 대웅전 심검당, 여천 홍국사, 안성 칠장사, 공주 마곡사, 서산 문수사 극락전, 괴산 각연사, 보은 법주사, 칠곡 송림사 대웅전, 소산 영랑사 대웅전,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등이 다루어졌다. 이 기록들은 제한된 지면 때문에 충분한 내용을 담지는 못하였으나 80년대 이후 위 사찰들의 건물구성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던 만큼 기록으로써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이밖에 조선시대의 개별 사찰의 건물에 대한 조사는 여러 문헌을 통하여 다루어 졌다. 고창 참당사, 완주 화암사, 영천 은혜사 백홍암등은 70년대에 들어와 새로이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문화재관리국이 1973년부터 펴내고 있는 韓國의 古建築은 그 대상이 거의 조선시대 불교사찰

건물이며 이제까지 나온 관련도면 가운데 가장 신뢰할만 하다는 점에서 기초자료로서 큰 가치를 갖는다. 또한 1985년부터는 완주 화암사, 김제 금산사, 구례 화엄사, 공주 마곡사등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사찰이나 건축사상 중요시되는 사찰을 대상으로 한 정밀한 실측조사보고서가 간행됨으로써 각 사찰내의 건물현황이 정확히 도면화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1987년 이후로는 각 지방의 행정단위별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상당한 양의 자료축적이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조선시대 각 사찰의 대한 기초적인 조사연구는 60년대 이래 다른 어느 대상보다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그 결과 상당히 많은 사찰내건물들이 도면화되고 관련 문헌자료가 정리되었다. 다만 이러한 기초자료의 축적에 비하여 이를 활용한 학술적인 연구논문의 발표는 불충분한 실정이다.

과거 조선시대의 불교는 정치적인 억압으로 거의 쇠퇴 일변도를 달린 것으로 이해되었고 불교 미술 특히 불교건축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와 견주어 전혀 불품없는 예술적 퇴락을 이바지한 것으로 서술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 불교건축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부재 세부 장식화 경향은 바로 이러한 쇠퇴기를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증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2, 30년 동안의 활발한 불교건축에 대한 조사 결과로는 조선시대의 불교는 결코 쇠퇴 일변도가 아니었으며 특히 불교건축은 17세기 이후로는 오히려 새로운 예술적 표현영역을 확대해 나간 것으로 평가되기 시작하고 있다.

조선시대 특히 조선후기 불교건축을 단순한 쇠퇴기의 건축형태로 이해하지 않고 이 시대에 새로이 사회적 진출을 시도한 부농층의 지원과 사찰 자체의 자구 노력끝에 달성한 이 시대 고유한 건축형태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겨우 시작 단계라고 보여진다. 조선시대 불교건축을 조선시대에 고유한 건축표현의 결과로 보려는 시도는 이미 韓國建築史(尹張燮, 1974)에서 단초가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논고는 80년대 후반에 와서야 나타났다. 朝鮮時代 寺刹建築의 殿閣構成과 配置形式 研究(金奉烈, 1989)는 교리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 조선시대 불교사찰이 16세기까지는 종파적 성격에 의한 전각구성 및 배치형식을 취하다가 17세기 이후 종파를 벗어난 소위 통불교적 형식을 취하면서 전각들이 불단, 보살단, 신중단의 3단으로 위계화되고 동심원적인 외부공간을 형성한다는 소론을 폈으며, 開岩寺 大雄寶殿 建築形式에 관한 研究(洪大炯, 1990)는 섬세한 세부 부재장식이 돋보이는 부안 개암사 대웅보전이 17세기의 완숙한 건축술의 소산으로 창출된 것임을 논증한 것으로, 조선후기 불교건축을 그 시대의 건축표현 형식으로 이해하고자 한 것들이다. 朝鮮王朝 願堂寺 刹 造營에 관한 研究(徐致祥, 1990)는 억불정책속에서 왕실의 지원을 받으며 창건을 계속해온 원당사찰들에서 조선시대 불교사찰의 또 다른 속성을 파헤치고자 한 시도였다.

불교는 조선초기에 사회 지배계층으로부터 철저히 억압받았으나 왕실의 부분적인 비호를 받았으며 17세기에 들어서면서 농민중에서 경제력을 획득한 부농계층의 지원과 사찰 자체의 경제력 획득에 힘입어 활발히 조영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실제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사찰건물의 거의 대다수가 17세기 이후의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 시기 불교건축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조선시대 건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조선후기 불교건축

의 화려한 장식화 경향은 이 시기 불교사찰의 후원자가 어떤 계층이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될 것이며 그들의 신앙형태는 바로 불교건축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19세기말 고종년간에는 왕실내의 지원에 힘입어 도성주변에 많은 사찰의 창건이 있었다. 이 사찰들은 왕조 말기의 신앙형태를 반영한 대방이라고 지칭되는 독특한 전각을 중심으로 전각들을 구성하였으며 그것은 19세기말의 시대성을 적절히 표출하고 있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앞으로 조선시대의 불교건축은 불교의 교리에 입각한 또는 신앙 형태에 입각한 건물의 형태나 기능의 분석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또한 새로운 사회변혁이 나타난 왕조초기, 억불정책이 극심하였던 16세기, 지지기반을 새로이 얻어 부흥을 전개한 17, 8세기, 도성주변에서 독특한 전각구성을 전개한 19세기말 등 각 시기를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연구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그러한 각 시대상이 밝혀짐으로써 비로소 한국건축속에서의 조선시대 불교건축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3. 주택건축

조선시대의 주택건축은 그 전 시대에 비하여 건물유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연히 연구도 유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주택의 평면형태가 가장 주목되었으며 구조수법이나 창호등의 세부 의장 및 입지나 배치등의 유구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되었다. 조선시대의 주택은 대체로 상류 계층의 주택과 서민층의 주택 즉 흔히 민가로 불리우는 주택으로 대별되어 연구되어 왔다. 또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을단위의 조사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상류주택에 대하여는 이미 60년대부터 개별적인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로 건립연대가 오랜 건물이나 보존 상태가 좋은 건물이 대상이 되었는데, 이 때의 조사는 대개 건물의 가치를 판단하여 문화재로 지정하는 작업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70년대를 거쳐 80년대까지 문화재관리국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전국에 걸쳐 상당한 수의 건물이 중요민속자료 또는 각 지방별로 민속자료등으로 지정되었다. 이 작업들을 통하여 각 지방에 산재한 상류주택들에 대하여는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구조기법의 차이등도 어느정도는 윤곽이 잡혀졌으며 그러한 작업성과의 일단은 文化財大觀(重要民俗資料 上卷, 문화재관리국, 1985)과 같은 책자의 형태로 정리되었다.

韓國住宅建築(朱南哲, 1980)은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공간구성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작업이었으며, 상류주택의 배치가 갖는 비대칭적 균형, 공간의 性的 분화, 연속성과 위계성등이 공간구성의 특성으로 정리되었다. 또한 朝鮮中期後 南部地方 中上流住宅에 관한 研究(崔壹, 1989)는 사회계층이나 시대성을 염두에 두고 주택을 분석한 점에서 진일보한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서민계층의 주거로 지칭되는 민가는 건축학뿐 아니라 지리학, 민속학에서도 오래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고 이들은 제 각기 연구방법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적지않은 연구업적을 축적하였다. 韓國의 民家研究(張保雄, 1980)은 문화지리학의 입장을 대표하는 업적으로, 여기서 각 지역의

민가는 문화의 지역적 차이를 나타내 보이는 지표로 인식되어 민가의 유형분류, 지리적 분포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 졌다. 민속학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는 1968년 부터 계속되어온 韓國民俗綜合報告書(문화재관리국, 1968—1988)와 韓國의 住居民俗誌(金光彥, 1987)를 꼽을 수 있는데, 건축의례, 주거와 관련한 신앙, 주거생활과 그와 관련한 생활기구등을 통하여 개개의 가옥에 대한 세부적인 특징이 분석되었다. 한국의 살림집(申榮勳, 1983)은 민속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민속학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문헌자료의 뒷받침과 건축구조상의 특성을 놓치지 않고 조선시대 민가의 실체를 평이하게 풀어낸 것으로 저자의 오랜 관찰과 연구의 결산으로 평가된다.

건축학에서는 연구인력이나 업적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70년대이후 농촌지역의 개발 또는 맴건설에 따른 수몰등에 자극되어 전국적인 조사활동이 진행되었다. 현상에 대한 실측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시되었으며 실측된 도면을 자료로 하여 주거사학적, 주거학적, 생태학적인 여러가지 해석이 뒤따랐다. 韓國南部地方의 民家에 관한 研究(曹成基, 1985), 三陟以南 東海岸地域 傳統民家에 관한 研究(姜榮煥, 1989)를 비롯하여 많은 수의 논문들이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평면의 유형이나 구조적 특징, 생활양식을 반영한 세부구성을 분석하였으며 인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을 원용하여 민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새롭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민가연구는 접근방법이나 시각이 다양하여 학설이 지나치게 갈라져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부정할 수 없겠는데 그 단적인 예는 지역에 따라, 또는 평면유형에 따라 또는 구조방식이나 바닥구조에 따라 제각기 다른 분류를 하고 있는 민가의 유형분류에서 볼 수 있다.

마을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주거를 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선으로 또는 면으로 보아야 한다는 당연한 자세에서 출발하였다. 안동댐 건설로 수몰되게 된 의인 섬마을의 조사(울산대, 1976)를 비롯하여 양동 하회마을의 조사보고서(1979), 樂安邑城民俗마을細部現況綜合調查報告書(1985) 등등의 조사보고서가 간행되었으며 이후 조선시대의 주택연구는 마을이라는 전체적인 시각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화되었다. 아울러 안동 하회마을, 월성 양동마을, 제주 성읍마을이 문화재로 지정되고 이들 마을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의 공간구성, 마을 형성의 인문 사회 경제적 배경에 대한 분석등을 다룬 많은 논문이 주로 건축관계의 학술지를 통하여 발표되었다. 마을의 입지에서 도로와 가옥들의 배치에는 풍수지리사상이 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각 가옥의 좌향과 실의 방위에서도 풍수설과 관련된 원칙들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또한 혈연에 의한 소위 동족마을의 구성이 갖는 특징, 종가를 중심으로 한 마을의 전개와 확대 방식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들도 80년대에 들어와 나타났다.

바닥의 象徵의性格에서 본 韓國住宅史의 基礎的 研究(朴彥坤, 1984)는 시각을 약간 달리한 것으로, 실생활을 통한 주거의 분석에 맞추어 마루와 온돌의 상관성을 사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주택조영에 영향을 준 정신적인 요소로 양택론이 중시되어, 陽宅論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의 간접이 방식에 관한 研究(金鴻植, 1988), 民家三要를 통하여 본 朝鮮陽宅論에 관한 研究(李相海, 1988) 등이 양택론과 주택의 평면구성과 관계를 다루었다.

조선시대의 주택건축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

은 시대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그러한 시각의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조선시대내에서의 각 시기에 따른 건축적 변화 그리고 계층에 따른 차이점 및 각 계층 상호간의 영향등과 같은 시대적인 문제는 충분히 파악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조선시대의 사회 지배세력은 초기, 중기, 후기를 거치면서 변화해 갔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주택 건축은 변화해 나갔으며 이러한 변화의 큰 흐름속에서 표출되어진 주택건축의 특성을 읽어내는 것은 이 시대 주택건축이 건축사 또는 미술사의 한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발판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시대의 주택건축에 대해서는 우선 각 계층 주거의 각 시대적인 원형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의 경우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일단 창건되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인식에서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 창건때 또는 수리된 때의 원형이 분명해진 다음이라야 그러한 원형들을 통하여 한 시기의 계층별 주택의 모습이 정확히 드러날 것이다. 다음은 각 계층간의 상호교류 또는 영향관계를 분명히하는 일이다. 16세기 상류계층의 세련된 건축물은 틀림없이 생산력이 향상된 18세기의 부농들의 주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그것은 다시 서민계층에게도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19세기 민가에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창호는 결코 서민들의 미의식속에서 저절로 등장한 것은 아닐 것이다. 반대로 민가가 갖는 합리적인 자연스러운 재료의 이용은 상류계층의 주택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교류의 실상이 파악되어야 비로소 각 시기의 각 계층의 주택건축은 정확한 역사적 위상을 획득할 수 있다.

마을의 연구는 이러한 개개 주택의 시대성이 명확해짐으로써 비로소 마을형성의 과정과 특성이 바로 정립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조선시대의 마을 연구는 농촌마을과 함께 이 시기의 도시마을과의 대비적인 연구가 더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4. 鄕校 書院 및 기타건축

향교나 서원 또는 客舍 官衙 亭子와 같은 건물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전국적으로 확산 전개된 건물이며 각 지방에 고루 분산 건립되었다는 특징을 갖는 것들이다. 이런 유형의 건물에 대해서는 70년대 초반까지는 다른 건물에 비하여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 때까지는 주로 향교나 서원속에 있는 일부 건립 연대가 오랜 건물에 대한 구조형식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정도였고 향교나 서원 자체의 구성방식이나 건축적인 특성등은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고 대개는 70년대 후반 또는 8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향교에 대해서는, 개별 향교를 대상으로 건립연대가 오랜 건물에 대한 평가가 60년대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향교의 구성원리나 건축적인 성격이 종합적으로 논의된 것은 80년대 이후인데, 朝鮮時代 鄕校建築에 관한 研究(金知民, 1984)가 초기의 업적이며 1985, 86년에는 경기도와 전라남도에서 각각 도내 소재 향교를 대상으로 연혁이나 관련문헌을 비롯하여 건물의 실측도면을 실은 보고서를 내었고 이러한 작업의 소산으로 관련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후에도 仁同鄕校, 東萊鄕校등에 대한 실측보고서가 발간되는 등 각 지방의 개개 향교에 대한 일차적인 형상파악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 졌다. 향교에 대해서 앞으로 특히 과제가 되는 것은 조선시대의 각 시대에

다른 향교의 건축적인 변화상에 대한 파악이라고 생각된다. 향교는 일견 왕조초기에 갖추어진 구성원리가 말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된 듯 하지만 중기이후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향교의 사회적 기능이 크게 달라졌던 만큼 그 영향이 반드시 나타났을 것이며 그러한 시대의 변화상이 명확해질 때 비로서 향교건축은 조선시대 건축의 역사적 흐름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객사와 관아는 80년대에 들어와 비로서 건축적으로 주목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개별 건물에 대한 조사 연구가 있었고 전체를 조망한 연구로 官衙建築에 관한 研究(朱南哲, 1984), 客舍建築의 研究(朱南哲, 1986)가 있다. 객사나 관아는 유구도 극히 적고 건물의 규모나 형태도 두드러진 것이 없는 편이어서 소홀히 취급되어 왔으나 이들 건물은 조선시대의 어느 고을에서나 항상 중심되는 위치에 있었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지방의 도시구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좀더 적극적인 조사 연구가 요망된다.

서원은 비록 현존하는 유구는 많지 않지만 조선중기에 지어진 서원내 건물들을 대상으로 일찍부터 건축적 가치가 높히 평가되었다. 향교와는 달리 일정한 구성원칙을 지키면서도 주변환경에 따라 배치나 건물의 형태를 적절히 변화시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서원을 둘러싼 자연환경과의 뛰어난 조화를 지적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서원은 그것이 조선시대를 지배한 지방 사람들의 문화적 총체였다는 역사적 중요성에 비하여 그 건축적 성격이 거의 정립되지 못한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도 도산서원이나 옥천서원 병산서원등 영남지방의 극히 일부 서원만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고 서원건축이 조선시대 중기 이후의 사회적 변화에 대해 어떠한 건축적 대응을 하면서 조선말기로 이어졌는지 하는 역사적 시각에서의 고찰이 결여되어 있다. 비록 유구는 없다고 해도 서원에 대해서는 문중과 관련한 것을 비롯하여 문헌자료가 비교적 많은 편이므로 연구의 시각을 확대하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많은 내용들이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조선시대에서 갖는 서원의 건축사적 비중으로 보아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정자는 건립연대가 오랜 일부를 대상으로 60년대부터 조사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 때는 주로 세부 구조형상의 특징이 중시되었다. 80년대에 들어오면서 慶北地方을 中心으로 韓國의 亭樣式形成에 미친 要因分析에 관한 研究(安哲福, 1987), 한국의 정자(朴彦坤, 1989)등이 나와 정자의 형성 배경이나 건축적 성격이 보다 폭넓게 논의되었다. 다만 지금까지의 성과가 주로 정자 자체의 물리적인 형태 파악에 치중된데 비하여 조선시대의 정자에 대해서는 보다 폭 넓은 추상적인 면이 함께 고찰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즉 조선시대의 정자는 대개 지방에 칩거하거나 은거하던 선비들의 정신적인 휴양소였으며 따라서 이곳에는 성리학에 바탕을 둔 당시 선비들의 의식구조가 강하게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면이 읽혀지지 않고서는 정자는 충분히 이해되기 어려운 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서원이나 정자와 같이 지방의 사대부들에 의해 지어진 건물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들어가야 할 점으로는 무엇보다도 성리학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된다. 서원의 전각구성이나 배치는 서원이 갖는 물리적인 기능외에도 성리학이라는 정신적인 지표가 적지않게 작용하여 형성되었다고 생각되며 정자에 있어서는 더욱이 성리학적 자연관이

직접적으로 정자의 위치나 좌향, 건물의 규모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화음동정사의 구조를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석코자 한 造形藝術과 性理學(俞俊英, 1984)과 그 후의 일련의 연구는 건축사학의 연구방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5. 구조형식

한국건축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순수한 목조건축이며 이 목조건축은 구조체를 이루는 각 부분이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구조는 건물의 성격이나 형태를 그대로 드러낸다. 더우기 구조의 세부는 시대에 따른 변화를 뚜렷이 나타내기 때문에 각 건물이 구조에 나타나는 일정한 형식은 건축의 시대적인 특성과 직결된다. 이런 이유로 한국건축의 연구에서 목조건물의 구조형식은 특별히 중시되어 왔다.

韓國古建築斷章(下卷, 金東賢, 1976)은 목조건물의 구조를 이루는 각 부분들 즉 초석 기둥 공포 지붕가구부등에 대하여 형상별 분류, 특징, 시대적인 차이등을 정리한 업적이었으며 1973년부터 문화재관리국이 펴내고 있는 한국의 고건축은 조선전기에 속하는 중요한 목조건물이 거의 망라되면서 정확한 세부도면이 제시되어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기초를 이루었다. 韓國建築의 楹雙窓에 관한 研究(金一鎭, 1988)는 창호에 설치되는 중간설주가 조선중기이전의 건물에 주로 나타나는 점을 통하여 세부기법의 변천을 구체화시켰다.

목조건축의 구조를 이루는 각 부분주에서도 공포부분은 건물의 성격이나 시대적 차이를 가장 뚜렷이 나타내 주는 부분으로, 공포의 형상에 대한 분석은 한국건축사의 연구 초기단계부터 중심 과제로 취급되었다.

조선시대의 공포는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것을 계승한 주심포와 다포가 주류를 이루다가 15세기 말경에는 주심포와 다포의 절충적인 형식도 나타나고 새로이 익공식이 출현하였으며 대체로 초기에는 구조에 충실하고 강직한 외형을 갖던 세부가 후기로 가면서 구조적인 기능보다 장식에 치중되는 경향을 띠었던 점이 여러 개설적인 논저에서 언급되었다.

이 가운데 익공형식은 60년대에 들어와 새로이 하나의 독립된 공포형식으로 정의된 것으로 중국이나 일본에서 볼 수 없는 조선시대 독창적인 형식으로 평가되었다. 1978년에는 조선시대에는 없어서 버렸다고 생각되던 하양구조가 완주 화암사극락전건물에서 확인이 되었으며 이후 하양구조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높아졌고 完州花巖寺極樂殿調查報告書(張慶浩, 1979)등의 논저가 발표되었다.

목구조에 대해서는 아직도 각 부재의 시대적 변화상이 충분히 해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조사와 비교고찰이 더 축적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공포부분에 있어서는 형상의 변화와 함께 개념상의 불명료한 점들도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익공의 기원에 대해서는 주심포식이 간략화된 것이라는 혼동되는 경우가 있으며 주심포와 다포의 절충적인 것, 익공과 다포의 절충적인 것들에 대한 구분도 모호한 경우가 적지않다.

한편 공포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분류하는 작업에서 몇가지 방법들이 혼재하고 있는데 韓國建築

樣式論(鄭寅國, 1974)에서는 공포를 주심포양식과 다포양식으로 나누어 각각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고 있고 韓國木造建築(金正基, 1980)에서는 조선시대의 공포를 주심포양식, 다포양식, 익공양식으로 나누고 있다. 한편 韓國建築史(尹張燮, 1973)에서는 공포를 목조건축의 형식을 결정짓는 요소로 파악하여 다포식, 절충식, 주심포식, 익공식으로 나누어 공포를 형식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공포에 대한 이러한 개념설정의 차이는 각기 타당성을 갖는 것이므로 앞으로 보다 깊은 관심과 논리적 추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공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 접근자세에서 새로운 시도가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시대를 주체로 하여 공포를 파악하는 시각의 필요성이다.

흔히 공포는 그 자체속에 시대적 차이를 드러내 보이는 요소들이 많은 관계로 공포의 세부 형상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건축의 역사적 변화를 파악한 것으로 잘못 인식되기 쉬운 허점을 안고 있다. 공포 자체의 형상변화가 건축의 역사적 변화자체를 대변해 버리는 것으로 잘못 취급됨으로써 건축에 대한 시대적 평가 자체를 왜곡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직도 공포와 관련하여서는 시대를 주체로 보면서 각 시대의 형상으로써 공포를 파악하는 연구가 불충분하다고 생각된다. 15세기에는 주심포와 다포의 절충적인 형식이 나타나며 18세기말에는 다포와 익공의 혼합정도 나타나는데 이런것들은 대개 절충식이라고 정의되면서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형식들은 비록 공포의 형식에서 보면 순수하지 못한 혼합형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나타났던 각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순수한 공포형식 못지않게 각 시대가 요구하여 만들어 낸 창조적인 또 하나의 형상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조선후기의 공포의 장식화경향 역시 그 시대가 요구한 예술표현의 한 현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선시대의 공포는 건축역사의 주인공으로서가 아니라 각 시대 구조형식의 한 부분으로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축구조나 공포와 관련하여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한국건축의 양식을 결정하는데 대한 모순을 지적한 韓國建築史研究의 反省(金鴻植, 1983)이 주목된다. 이 글에서는 양식이란 건물의 규모, 간사이, 노동의 질, 건축기술의 정도, 구조기법, 외형의 모양등 건축의 모든 요소를 종합한 평가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런 제반 요소가 특징적으로 보이는 시대를 기준으로 한 양식구분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아직 하나의 시론 단계에 머물고 있기는 하지만 조선시대의 건축구조나 공포를 인식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한 시각을 제시하는 문제로 생각된다.

건축양식 문제는 한국건축사에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에 분명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한 시대에 속하는 건축을 둘러싼 제반 사실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연구 대상가운데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각 시기에 있어서의 건축기술,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구사하여 직접 건축의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장인들의 조직이나 작업여건, 그러한 작업여건을 뒷받침하는 제반 경제적여건에 대한 구체적이 파악이다.

6. 건축기술

조선후기 다포식 건물인 서울 남대문은 1960년 해체수리가 착수되었으며 그 수리보고서는 1966년 간행되었는데 이 공사를 통하여 조선초기 목조건물에 대한 기술적인 면들이 많이 밝혀졌음은 물론 공사과정의 상세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 공사 후에도 봉정사 극락전의 복원공사나 그 밖에 수 많은 중요한 목조건물의 해체수리공사가 있었으나 거의 결과보고서를 남기지 않아 귀중한 내용들이 널리 연구자료화 되지 못한 점은 학계의 커다란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목조건물이나 석조건물을 막론하고 그 기술적인 세부사항들은 해체수리가 아니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각 기술의 시대적인 차이등은 이러한 해체수리 자료의 축적에 의하지 않고는 좀처럼 실상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해체수리 공사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반드시 공사내용을 보고서로 남겨야 할 것이다. 法住寺팔상전의 木部接合(金東賢, 1970)은 특수한 구조로 조선중기의 건물을 대상으로 해체수리과정에서 얻어진 목부접합의 세부기법을 소개한 것으로 주목된다.

각 시대에 사용된 척도를 복원하는 문제는 기술사를 해명하는 중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소홀한 분야이다. 韓國의 營造尺度(尹張燮, 1975)가 고대에서 조선말까지 전 기간의 척도를 다루었으며 80년대에 활발히 간행된 건물의 실측조사보고서가 거의 빠짐없이 조선시대의 용적 문제를 다루었다. 실측보고서의 경우, 상세한 관련자료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실측에서 얻어진 수치를 그대로 완수로 나누는 단순한 해석에 그치고 있다. 용척의 시대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접근방법을 달리한 새로운 해석이 요구된다.

목조건축의 설계방법이나 기준척도, 부재간의 비례법칙등은 현대건축의 설계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는 있으나 뚜렷한 연구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기존 건물의 부재를 칫수화하여 귀납적으로 어떤 일정한 비례법칙을 얻어내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대상 건물의 신뢰할 만한 결과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화계사실측조사보고서(1989)와 운문사대웅보전실측조사보고서(1989)에서는 실측된 칫수에서 제재목의 칫수를 설정하고 여기서 각 부재간의 비례관계를 추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였는데 앞으로 보다 설득력있는 연구결과가 얻어질 전망이다.

연장에 대해서는 각 시대의 기술수준을 이해하는데 대한 높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업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의 건축연장(이왕기, 1983—84)이 현존하는 연장을 기능별로 정리하여 대체적인 윤곽을 잡고는 있으나, 조선시대전까지의 연장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조선시대에 들어와 어떤 종류가 특히 발달을 보았으며 그 보급정도는 어떠하였는지 해명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당시 쓰이던 연장을 직접 수집하여 하는 연구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문헌을 통해서나 또는 현존 건물에 남아있는 가공흔적을 통한 복원적 연구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해명의 실마리를 잡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고건축수량기문집(신영훈, 1964)은 건물조사에서 수집된 각종 상량문이나 목서들을 모은

것으로, 이런 자료들은 건물의 건립연대를 판명하는 데에도 중요하지만 각 공사에 직접 종사한 장인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건축생산조직의 변천에 관한 연구(김동욱, 1987)는 이들 상량문외에 조선후기에 작성된 건축공사관계 의뢰서에 실린 장인 관계의 기사들을 통하여 삼국시대에서 조선말기까지 건축공사에 종사한 장인들의 조직이 어떻게 변천되었는가를 정리한 것으로, 특히 조선시대 장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관의 예속에서 벗어나 민간장인으로서 조직화하는 과정을 초보적으로 더듬어 나갔으며 아울러 승장들의 활동과 쇠퇴과정도 고찰되었다. 장인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들이 불명한 상태이며 특히 민간장인들의 조직과 그들의 영업방식, 지방에서의 활동 및 장인의 직업계승방식과 그들의 계보등이 해명되어야 할 큰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시대의 자재수급방식, 공사재원의 조달과 그 소모형태등도 한 시기의 건축형태 나아가서는 한 시대 건축양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지만 아직 이런 문제에 대하여는 이렇다할 연구성과를 얻고있지 못한 실정이다.

Ⅲ. 근대(개화기에서 1945년까지)

건축사상의 근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자체가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커다란 과제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라 1870년대 이후 서양풍의 건물이 유입된 시점에서 1945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근대건축에 대한 연구는 70년대까지 거의 개별적인 건물에 대한 조사나 자료정리 수준에 머물렀고 연구 인력도 극히 제한된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80년대 특히 80년대 후반부에 들어서 비로소 연구의 시각이 넓어졌고 무엇보다도 연구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개별적인 건물에 대한 연구성과를 보면, 한국양식건축80년사(해방전편, 윤일주, 1966)가 이 분야에서 최초로 근대건축을 대상으로 이를 시대적 변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를 시도한 업적으로 손꼽힌다. 시기를 초기(1900년까지), 구한국말기, 일제전반기, 일제후반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중요건물을 나열하였으며 이미 없어진 상당수의 건물에 대하여는 사진 또는 도면자료를 수록하고 각 건물의 개요와 설계자 또는 건축양식적 특징등을 적고 말미에 연표를 삽입하였다. 이 저서가 정리되기 앞서 부산의 양풍건축(1963), 경운궁의 양관건축(1965)이 같은 저자에 의해 정리되었으며 이것들은 60년대에 이루어진 근대건축의 거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70년대에는 오히려 근대건축에 대한 자료조사나 발표는 줄어든 경향을 보였는데 공간지에 연재된 한국양식건축의 발자취(윤일주, 1973—75)가 저자의 앞 저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근대건축형성의 배경사정등을 다루었고 역시 같은 저자의 개설적인 저술로 한국현대미술사 건축편(1978)이 있다. 이조말부터 1945년까지의 한국의 주택변천(주남철, 1970)은 개괄적이기는 하지만 이 시기 주택의 전반적인 조류를 역사적인 시각에서 다룬 보기 드문 논술이었으며 한국내 기독교회의 분류와 건축적 기능에 관한 연구(김정수, 1974)는 대상이 반드시 근대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으

나 이 시기 종교건축의 특성을 정리한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편, 70년대는 비록 전문 연구자의 손을 거친 학술적인 연구업적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근대건축이 갖는 사회적 가치나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문제들을 제기한 시기였다.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의 확장과 각종 건설활동의 확대 및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능적 욕구에 위해 근대기에 지어진 많은 건물들이 철거되는 사태가 빈발하자 그에 대한 주의가 환기된 것이다. 그결과 도심에 위치한 일부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물에 대한 문화재지정 작업이 이루어져 구대한의원본관을 비롯한 8동의 건물이 76년과 77년에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민족적인 연관성을 갖고있던 유서 깊은 건물들에 대해서 철거를 아쉬워하는 일부 인사들에 의해 그 보존을 요청되는 건의활동이 있었다. 이런 경우 대개는 관련자들의 무관심으로 해서 건물이 보존된 예는 거의 없었으나 근대건축에 약간의 사회적 관심은 제고되었다고 생각된다.

80년대는 70년대의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의 제기가 서서히 학술적인 성과로 나타난 시기로, 이 시기에 근대건축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큰 증가를 보였다. 우선 개별 건물에 대한 조사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가톨릭성당이나 그 밖의 종교시설에 대한 교파별 조사연구가 두드러지고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가 정리되었으며 주택에 대해서도 여러 계층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초적인 조사를 토대로 하여 한국개화기의 양옥건축에 관한 조사연구(윤일주, 1982), 한국성당건축의 토착화에 관한 연구(김정신, 1983), 근대한국 초중등학교의 건축유형분석에 관한 연구(이광노, 1987), 한국가톨릭성당건축의 수용과 변천에 관한 연구(김정신, 1988), 한국개항장의 외인관 연구(김태영, 1990)등 기능에 따른 각 건물유형의 성격이나 가치등이 고찰되었다. 또한 한국근대건축의 재조명(김정동, 1987—89)은 서울을 대상으로 새로운 자료들을 활용하여 근대기의 주요건물을 거의 망라하였다.

유구나 사진자료를 통한 건물유형에 대한 연구외에도 여러 방면의 접근이 시도되었는데 高宗年間의 興役譜(신영훈, 1987)는 고종조의 관련 문헌기록을 연대기로 정리하였으며 경운궁 영건에 관한 연구(김순일, 1983)는 구한말의 건축생산활동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궁궐공사에서 전통적인 공사체제에 도급제와 같은 새로운 방식이 혼용되는 과정을 고찰하였고 한국근대화과정의 건축제도과 장인활동에 관한 연구(김란기, 1990)도 건축의 생산적 측면의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 밖에 구대한의원 수리공사보고서(1982), 석조전건물구조 안전도 조사연구보고서(1989)는 근대건축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게 된다.

근대기의 작가 즉 건축가에 대한 연구는 70년대까지는 거론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80년대에 와서 비로소 연구가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양식건축 유입시기의 한국인 건축가의 활동과 그 작품에 관한 조사연구(윤일주, 1980)가 초기 한국인 건축가의 역할을 다루었으며, 1910—1930년대 2인의 외인건축가에 대하여(윤일주, 1985), 2인의 성직자 건축가에 대하여(김정신, 1988), 도래한 서양인 건축가에 관한 연구(김정동, 1989)가 각각 외국인으로 한국근대건축에 참여한 인물들의 성격과 역할등을 고찰하였다.

근대건축에 관한 이제까지의 연구성과를 돌이켜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일제시대를 어떻게

다를 것이냐하는 문제로 생각된다. 이 문제는 기존의 연구들이 거의 회피하고 넘어가고 있는 인상이지만, 1910년 이전의 한국건축과 1945년 이후의 한국건축이 보여주는 隔切을 역사적으로 이어주는 작업이 없이는 한국의 근대건축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곤란이 이 문제앞에 놓여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일본인들이 짓고 사용한 건물들은 대부분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이시대 한국인들의 건축활동이 연구의 초점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으나 그들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전체적인 건축양식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당시 일본인들의 건축활동이 우리의 연구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개화기 및 구한말의 상황의 대해서는 지금까지 서양의 영향이 지나치게 부각된 반면 토착적인 건축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되어있지 않았나 하는 문제점을 갖게 한다. 1989년부터 공간지에 연재가 시작되고 있는 한국건축사론(신영훈)은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내용전개에 큰 기대를 모으게 하고 있다.

IV. 결어

조선시대 및 근대를 포함하여 한국건축사의 연구에서 제기될 수 있는 앞으로의 과제는 각 시기로 세분된 제반 건축현상에 대한 분석을 축적하는 것이며 각 시기간의 연속성을 추구하는 작업으로 요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물론 특정 시대를 한정하여 그 시대속에서의 건축현상을 분석한 연구가 80년대 부터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세분된 시간대를 설정한 연구는 적은 양에 불과하다. 세분된 각 시기의 건축현상이 파악되지 않고서는 한 시대 건축의 전체상은 그려질 수 없을 것이며 그러한 연구의 축적없이 한국건축사의 역사적 변천의 법칙성 추구나 체계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건축사학이 역사를 다루는 학문분야인 이상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는 지극히 당연한 점이기도 하며 또한 역사학을 비롯한 주변 학문 분야에서는 이미 상식화된 일이기도 하겠으며 아울러 건축사학의 학문적 후진성을 드러내는 점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의 초기가 구체화되지 않는 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연결하는 것은 항상 불분명한 상태로 남을 것이며 16세기 건축과 17세기 건축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한 임진왜란이 조선시대 건축에 미친 영향은 여전히 왜곡되어 평가될 것이다.

건축을 樣式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은 특히 건축사의 경우 도외시할 수 없는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건축의 양식을 설정하는 기준이 공포라든지 그 밖의 특정한 부분에 의존되어서는 역사와 지속성을 얻기는 매우 곤란할 것이다. 韓國建築史研究의 反省(金鴻植, 1983)에서 지적하였듯이 양식이란 건물의 규모, 간사이, 노동의 질, 건축기술의 정도, 구조기법, 외형의 모양 등 건축의 모든 요소를 종합한 평가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일 것이며 양식은 이런 제반 요소가 특징적으로 보이는 시대를 기준으로 개념지워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국건축사의 보다 궁극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시대구분 문제도 바로 이와 같은 세분된

각 시기에 대한 학문적 천착과 이를 바탕으로 얻어지는 각 시대의 양식적 특성이 정의되면서 비로소 널리 설득력있고 유효한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